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 개요】 한일 관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한 방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발신력이 있는 대학생 및 사회인 등 19명이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일했습니다. 일행은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참가 및 노토반도지진복구상황시찰'을 테마로 도쿄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아이치현을 방문하여 각종 시찰, 동세대 교류, 테마에 따른 특강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및 사회인 등 총 19명

【방문지】 도쿄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아이치현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9월 19일 (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9월 26일 (금)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예방】 외무성, 【강의】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9월 27일 (토) A 조 :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일본의 일반시민들과 교류 (대학생방한단 동창조직 회원들과 공동 운영)

B 조 :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취재,

【시찰】 이수현씨 추도 · 현장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9월 28일 (일) B 조 :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일본의 일반시민들과 교류 (대학생방한단 동창조직 회원들과 공동 운영)

A 조 :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취재,

【시찰】 이수현씨 추도 · 현장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9월 29일 (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石川県能登半島)로 이동

【시찰】 현지 재해 지역 지원 활동 관계자의 안내로 노토반도지진 재해 지역 부흥 상황 시찰 ~ 와지마(輪島)시내 : 와지마 출장 새벽 시장 · 와지마누리 (輪島塗) 칠기공방 · 세계농업유산 「시로요네센마이다 (白米千枚田)」 등 북부해안선、스즈 (珠洲) 시내 : 스즈나리식당 · 오타니(大谷)초중일관고 등, 그 이외에도 차창 너머로 가설주택 등 시찰 후 나나오(七尾)시로 이동, 【강의】 여관 관계자의 지진 체험담

9월 30일 (화) 【시찰】 지진 피해자 해결과 함께 노토철도 승차, 후쿠이현으로 이동

【강의】 훔스테이 지역 후쿠이의 개요와 매력, 【교류】 훔스테이

10월 1일 (수) 【교류】 오전 훔스테이, 훔스테이 해산식 후 아이치현 나고야시로 이동
액션플랜 및 감상발표회 준비

10월 2일 (목) 액션플랜 및 감상발표회, 중부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p>9 월 26 일 【예방 · 강의】 외무성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p>	<p>9 월 27~28 일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부스 운영</p>
	
<p>9 월 27~28 일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부스 운영</p>	<p>9 월 29 일 【시찰】 노토반도지진 재해지역 부흥 상황</p>
	
<p>9 월 29 일 【시찰】 노토반도지진 재해 지역 부흥 상황</p>	<p>9 월 30 일 【시찰】 지진 피해자 해설과 함께 노토철도 승차</p>
	
<p>9 월 30 일 【교류】 흄스테이</p>	<p>10 월 1 일 【교류】 흄스테이 해산식</p>

3. 참가자의 감상 (발췌)

◆ 한국 대학생

이번 방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노토반도지진의 피해지역을 직접 관찰한 부분이다. 와지마시와 스즈시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 부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 등으로밖에 접한 적이 없는 지진의 무서움을 피부로 느낀 한편으로,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둑 묵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흥시키고자 하는 분들의 모습에 감동했고 깊은 인상이 남았다. 재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돋고자 하는 모습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다.

◆ 한국 대학생

도쿄의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지금까지 없었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기쁨의 눈물이 났고, 노토반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며 눈물이 났고, 후쿠이에서는 호스트패밀리 여러분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눈물이 났다. 노토반도 지진피해지역 상황 시찰 직후에 한적한 시골에서 험스테이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도 깨닫게 되어 너무 마음에 와 달았다. 이러한 눈물은 방일단 관계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인연의 눈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싶다.

◆ 한국 대학생

「한일축제한마당」과 험스테이를 비롯해 이번 방일에서는 정말로 많은 일본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일본인의 문화와 취향,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의문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또한, 한국 문화가 일본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원래 일본을 좋아했지만 일본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이었는데, 이번 방일을 통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간애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 한국 사회인

처음에 노토반도지진의 피해지역을 방문한다고 들었을 때 ‘부흥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과 피해상황을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피해지역에서 만난 분들 모두가 “잘 와 줬다.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봐 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와 줌으로써 우리도 힘이 난다” 등 대환영을 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다. 그리고, 피해 당시의 상황부터 부흥을 위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들간의 협력과 연결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반시민 등의 자주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 대단히 유익했다. 한국은 무슨 일이 생기면 행정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이러한 자세와 움직임은 크게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4. 일본측 감상 (발췌)

◆ JKAF (대학생방한단 동창조직 :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에서 부스를 공동운영)

이번에 방일단 여러분을 맞이하여 함께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일단 여러분과 협력하여 운영한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하자」와 「고구려 의상 착용 체험」 부스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방문자들과 교류를 거듭할 수 있었고,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이라는 해에 상응하는 부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상호이해와 연결이 한층 더 깊어지지 않았나 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 「한일축제한마당」의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하자」 부스 참가자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한일의 일반시민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국의 젊은이들의 일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전해졌고, 한국 현지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쌓여서 한일 우호관계가 발전해간다고 느꼈습니다. 축제 중에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 노토반도지진 피해지역 안내원 (노토반도 현지에서 복구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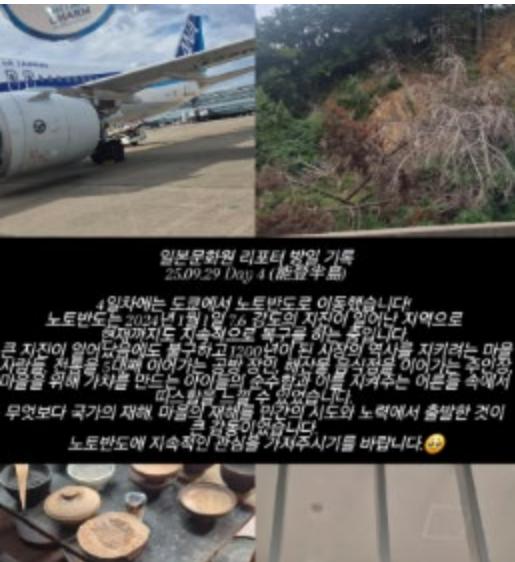
이번에 노토까지 찾아와 주셔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고, 피해자라도 일한교류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희 노토는 아직 부흥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번 시찰을 통해 조금이라도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시간과 함께 잊혀지기 마련입니다만, 저희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오래오래 이 기억을 전달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부디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노토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디 부흥된 노트를 다시 보러 와 주십시오.

◆ 후쿠이현 훌스테이 가정

한국의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은 두번째입니다만, 지난번 방문자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번 훌스테이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오시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계속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훌륭하고 우수한 젊은이들로 더욱 한국인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에서 딸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테니, 여러분들도 부디 저희를 일본의 아버지어머니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또왔습니다”하고 후쿠이에 와 주면 좋겠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p>2025년 9월 26일 (Instagram : 외무성 예방)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꾸준한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만큼 국제사회 문제를 함께 협력하여 끝나가기를 희망합니다.</p>	<p>2025년 9월 28일 (Instagram :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과거 조선통신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는 문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현대의 통신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매력을 공유하고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며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도 문화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욱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p>
 <p>일본문화원 리포터 방일 기록 25.09.29 Day 4 (能登半島)</p> <p>4일차에는 도쿄에서 노토반도로 이동했습니다! 노토반도는 2024년 1월 1일 규모 7.6의 지진이 일어난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복구를 하는 중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된 시장의 역사를 지키려는 마을 주민들은 전통을 살피며 이어가는 공방 장인, 해산물 음식점은 이어가는 주민들, 마을을 위해 가사를 만드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이를 지켜주는 어른들 속에서 마스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재해, 마을의 재해, 노력을 통해 출발한 것이 큰 힘을 주었습니다. 노토반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p>	 <p>자연이 아름다운 후쿠이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일본 가정식 도 맛보고 정겨운 동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p> <p>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라키상께서 일본의 다도 문화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규칙과 순서로 이루어진 다도는 인생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의 맛보다도 차를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다도의 정신은 일본인의 삶의 태도와 문화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p> <p>또한, 일본의 가정식과 가정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p>
<p>2025년 9월 29일 (Instagram : 노토반도지진 복구 상황 시찰)</p> <p>노토반도는 작년 1월 1일 규모 7.6의 지진이 일어난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복구를 하는 중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새벽 시장을 지키려는 마을 사람, 전통을 5대째 이어가는 공방 장인, 해산물 음식점은 지키려는 사람들, 마을을 위해 가챠(캡슐형 장난감)를 만드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이를 지켜주는 어른들 속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재해, 마을의 재해, 복구를 민간의 시도와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노토반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p>	<p>2025년 10월 1일 (Instagram : 홈스테이)</p> <p>자연이 아름다운 후쿠이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일본 가정식도 맛보고 정겨운 동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라키상께서 일본의 다도 문화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규칙과 순서로 이루어지는 다도는 인생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의 맛보다도 차를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다도의 정신은 일본인의 삶의 태도와 문화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가정식과 가정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p>

 <p>東京で日本と韓国交流イベント 韓国</p> 	 <p>「両国間の関係改善の好循環により 人的交流と文化交流も深まっている」</p>
<p>2025년 9월 27일 (TBS 방송국 계열 「보도특집」)</p> <p>「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에 관한 뉴스에서, 본 방일단이 운영한 「고구려 고대 의상 착용 체험」「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하자」 부스의 모습이 소개됨.</p>	<p>2025년 9월 28일 (TV 아사히 방송국 계열 「굿! 뉴스」)</p> <p>「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에 관한 뉴스에서, 본 방일단이 운영한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하자」 부스의 모습이 소개됨. 그 밖에도 Yahoo! 뉴스 등 인터넷 뉴스, 한국 KBS TV 뉴스 등에서도 많이 소개됨.</p>
<p>← 매일경제</p> <p>구독중</p> <p>경제 사회 생활 세계 IT 사설/칼럼 신문</p>  <p>27일 개막한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여한 JKAF 청년들의 모습. [사진=일한문화교류기금]</p> <p>부스운영에 참여한 JKAF 측 코우키씨는 자신의 활동 이 “한일 양국 우호를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p>	<p>연합뉴스</p> <p>일본 재해 현장 찾은 한국 청년 방일단… "민간 교류 확대"</p> <p>작성자 기자 작성일 2025.10.05. 오후 11:33 ~ 수정 2025.10.06. 오후 11:34 [기사수정]</p> <p>13 29</p> <p>다음 가기 쪽</p>  <p>일본 같은 한국 청년들 [한한문화교류기금 제공, 제작비 및 DB 금지]</p> <p>[무선=연합뉴스] 작성자 기자 = 주(驻)무신일본국송영사관과 일본문화교류기금은 한일 간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제한 국보보 방일단' 사업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p> <p>이번 사업은 한국 청년 17명이 일본 현지에 일주일가량 머물며 자신들이 보고 느낀 일본의 매력을 SNS 플랫폼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p> <p>방일단은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도쿄에서 열린 '한일 축제한마당'에 참가해 한국 전통 의상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며 현지인들과 교류했다.</p>

<p>2025년 9월 28일 (한국 : 매일경제)</p> <p>『도쿄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주한일본 공관선발 한국재팬리포터들 JKAF 회원들과 함께 일본시민들과 교류』라는 제목으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운영한 부스의 모습을 소개.</p>	<p>2025년 10월 6일 (한국 : 연합뉴스)</p> <p>「일본 재해 현장 찾은 한국 청년 방일단~민간교류확대」라는 제목으로, 본 방일단의 각 프로그램 (도쿄 : 「한일축제한마당」부스 운영, 노토반도 지진피해지역 부흥상황 시찰, 후쿠이 : 흄스테이)를 소개.</p>
---	---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성과 발표】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한일축제한마당」에서 한일의 젊은이들이 함께 부스를 운영하고, 노토반도에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흄스테이에서 일본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인적 교류의 장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가 틀림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어디를 가도 일본분들이 한국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놀랐고, 다양한 장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외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 특히 노토반도 지진피해지 시찰에서는 시민들이 협력하면서 곤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또한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달해 가는 「가타리베」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큰 배움이 되었다.

【액션 플랜】

- 방일프로그램에서 배운 다양한 콘텐츠를

【성과 발표】

-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접해 온 일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직접 방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 또한 한일관계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상호이해와 교류가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 특히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부스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과 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서로 궁금했던 점에 대해 마주하여 여러 번 묻고 답하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 노토반도 지진피해지 시찰에서는 아직 부흥이 진행중인 가운데, 열심히 생활하며 서로를 지탱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일본 사회가 가지는 강한 회복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액션 플랜】

<p>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을 통해 만난 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 한일 젊은이들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 JLPT 수험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기 ▪ 중장기적으로는 한일의 틀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공통과제에 대해 한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나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일본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 ▪ 노토반도 지진피해지역 시찰에서 배운 것을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SNS 등으로 적극적으로 발신하기 ▪ JLPT 수험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기 ▪ 앞으로도 일본의 뉴스와 트렌드는 물론 노토반도를 비롯한 피해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가기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